

원대구탕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9.10.13	조사자	정승우	유형구분	시민생활_연구진제안
대상명	원대구탕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가길 8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생활문화	물리적형태	점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개업년도	1979년	업종	음식점	경영자	손석호
이력사항	- 1979년 1대 손양원대표가 개점 - 1986년 첫 공중과 방송 출연 - 1990년대쯤 현재 위치로 이전 - 1994년부터 2세 손석호대표 운영체제로 전환				

□ 건축물 개요

설계자	-		시공자	-	
건립시기	1956년	건립용도	주택, 점포	소유자	김명희
구조	목조	현재용도	주택, 점포	소유구분	사유
층수	지상2층	건축면적	-	연면적	82.05㎡
층별면적	지상1층 (56.6㎡)	지상2층 (25.45㎡)			
이력사항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용산초등학교		
	시설높이	4층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버스	- 정류소명: 삼각지역(03-007, 03-567) - 버스번호: 100번, 150번, 151번 152번 외 다수		도보시간	02분~04분
	지하철	- 삼각지역(4호선, 6호선)		도보시간	01분~03분
	기타				
	주차장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주차대수	-
주차비용	-		주차가능시간	-	

2. 보존필요성

- 1979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대구탕집을 고수하고 있음

3. 활용방향

- 인증서 교부를 통하여 오래된 음식점으로 소개
- 시민홍보를 통한 해당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해당지역의 생활사 현장으로 활용

4.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약 30년 간 원형보존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축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방법	- 기존용도인 음식점으로 운영 중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매일	10:00~22:30	10,000원	약 명/일
주 메뉴	종류		가격	
	대구탕		10,000원	
	내장탕		10,000원	
	볶음밥		1,000원	
주메뉴 특성	깔끔한 국물맛			
맛의 보존	한결 같이 냉동, 해동을 매일작업하고 같은 날 소진하는 것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안내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유도사인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입체소형모형	<input type="checkbox"/> 재현모형	<input type="checkbox"/> 기록영화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도록/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없음)
시설현황	<input type="checkbox"/> 관리시설	<input type="checkbox"/> 휴게소	<input type="checkbox"/> 매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관리현황

- 자체적으로 관리·보수

5. 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 관련지도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이용계획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1-14)(용산지구)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4-08-0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

□ 관련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원대구탕 외부 전경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원대구탕 내부 전경(1)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원대구탕 내부 전경(2)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원대구탕 내부 전경(3)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원대구탕 내부 전경(3)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원대구탕 내부 전경(4) (직접 방문 촬영)</p>

6. 기사사항

□ 관련기사 - “[뒷골목 맛세상] 삼각지로터리 일대”

(전략)

‘원대구탕’ (02-717-8222)은 2001년에 작고한 손양원씨가 1979년에 이 골목에 처음으로 대구탕을 시작한 대구탕 골목의 원조격이다. 그러나 그이가 처음부터 이 골목에서 대구탕집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그이는 원래 같은 골목에 있는 이발소 주인이었고, 부인인 김명희씨가 지금의 ‘자원대구탕’ 자리에서 보신탄집을 했는데, 워낙에 장사가 안 되니까 대구요리로 메뉴를 바꾼 것이었다. 그런데 대구탕, 대구지리, 내장탕으로 대구요리 일색인 단순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싼 가격에 비해 양이 많으면서도 맛 또한 뛰어나서 주로 육군본부 소속 군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진 때문이었다.

(후략)

출처: 서울신문 2005년 01월 14일 기사내용 (<https://www.seoul.co.kr/>)

□ 관련기사 - “수요미식회' 대구탕 맛집은 어디?(8일)”

오늘(8일) 방송된 tvN '수요미식회'에서는 대구탕 맛집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머리가 큰 생선' 대구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됐다. 어두일미가 대구 때문에 생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구의 머리가 특별히 맛있는 이유와 대구뽕찜의 탄생 배경이 전해졌다.

이후 겨울철 쫄쫄 언 몸을 녹여 줄 대구탕 식당이 소개됐다. 삼각지 '원대구탕'은 칼칼하고 얼큰한 그 맛으로 30여 년간食客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나리와 콩나물 그리고 무가 푸짐하게 들어가 대구의 시원한 맛을 더한다.

(후략)

출처: 국제신문 2017년 02월 08일 기사내용 (<http://www.kookje.co.kr/>)

□ 관련기사 - “[맛집로드] 전통 풀풀 풍기는 진짜 원조들”

(전략)

◆원대구탕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는 원조 대구탕집이다. 카운터 옆 주방은 탕재료가 담긴 냄비들을 쌓아두는데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순식간에 없어졌다 다시 쌓이는 일이 반복된다. 이러다가 대구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만큼 인기 있는 곳이다. 메뉴는 오로지 대구탕 하나고 반찬도 동치미와 아가미 것갈뿐인데 한끼식사로 손색이 없을 만큼 양이 푸짐하다. 냄비에 가득 찬 미나리와 콩나물을 건어내면 대구살, 곤이, 이리, 애가 넉넉하다. 국물이 뽕뽕 변하며 물이 주체를 못하고 끓을 때 먹으면 된다. 국물이 좋아지면 면을 풀어서 먹다가 볶음밥을 추가해 냄비까지 굽어먹을 수 있다.

(후략)

출처: MNB 2017년 02월 11일 기사내용 (<http://mnb.moneys.mt.co.kr/>)

□ 관련기사 - “용산역 주변 먹거리... 맛집천국”

(전략)

50년 역사를 지닌 삼각지의 터줏대감 ‘평양집’은 차돌박이와 곱창, 내장곰탕으로 유명하다. ‘봉산집’은 차돌박이, 막장찌개로 평양집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38년간 대구탕을 끓여온 ‘원대구탕’, 37년간 삼각지 고가 아래 작은 가게를 지키고 있는 ‘문배동 육칼’도 이 지역 명소다.

(후략)

출처: 중앙일보 2017년 11월 03일 기사내용 (joongang.joins.com)

□ 관련기사 - “‘생생 정보마당’ 용산 삼각지 맛집 ‘원대구탕’...“40년 전통, 대구탕”

8일 방송된 ‘생생 정보마당’에서는 용산 삼각지 맛집 ‘원대구탕’이 소개됐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70년대부터 왔었다”, “양도 많고 맛있다”고 말했다. ‘원대구탕’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가길 8 한강로1가 142-4에 위치해 있다.

(후략)

출처: 탑스타뉴스 2018년 03월 08일 기사내용 (http://www.topstarnews.net/)

□ 관련기사 - “밍밍했던 도다리 축국이 '인생 요리'로 바뀐 사연

(전략)

대구탕과는 연이 깊은데 첫 서른의 사회생활이 연대기적으로 다 녹아 있다. 중앙일보 기자 시절 사옥 옆에 대구 매운탕 집이 있었는데 야근하기 전에 저녁으로 대구 매운탕을 시켜놓고 소주를 반주로 곁들였던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다. 그러다가 삼각지에 있는 ‘원’ 대구탕이란 맛집의 대구탕이 정말로 몇 수위의 매운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종종 찾는 단골집이 되었다.

보광그룹을 다닐 때 골프장 사장이 하고 싶어 건국대의 잔디경영대학원에 다녔는데 학우들끼리 수학여행 차 일본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부산 자갈치시장에 들러 점심으로 대구탕을 먹었는데 의외로 맛이 너무 훌륭했다. 맑은 지리였는데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후략)

출처: 중앙일보 2019년 04월 17일 기사내용 (joongang.joins.com)